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一、上元寺에 現存하는 모든 遺物이 高麗前半期에 造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二、그리고 기록에는 高麗史 世家 卷第四 顯宗一에 「上元道場」으로 처음 나타나는데 顯宗元年 正月乙丑에 廢上元道場이라 하였고 朝鮮王朝實錄의 世宗實錄과 世祖實錄에는 龍門山上元寺라고 기록되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의 龍門山上元寺는 틀림없으나 高麗史에는 上元道場이라고만 하여 어느 곳의 上元寺인지 의문되나 현존하는 上元寺의 遺物이 모두 高麗前半期로 推定되었으므로 「上元道場」과 上元寺의 遺物들은 그年代가 거의 一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高麗史의 「上元道場」은 上元寺를 말함을 알 수 있다.

三、그런데 高麗史의 上元道場은 顯宗元년에 廢하였다고 하였으므로 顯宗以前부터 上元寺가 道場으로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上元寺의 創建은 高麗 顯宗 以前으로 생각할 수 있다.

四、現存하는 遺物로 보아當初에는 石塔 石佛 銅鐘 雙獅子를 갖춘 石物 등으로 장엄을 이루었던 高麗時代의 盛利로서 朝鮮時代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註)

- 一、朝鮮總督府「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一五六~一五七
- 二、拙稿「梨大藏 石造浮屠에 關하여」金成植博士 華甲記念論叢參照
- 三、東國輿地勝覽 卷之八 砥平縣 佛宇條 參照
- 四、黃壽永「傳龍門山 上元寺銅鐘存疑」曉城 趙明基博士 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參照
- 五、一九六二年 六月과 十二月 두 차례에 걸쳐 踏查하였고 今年에도 一次 現地를 踏查하였다.
- 六、朝鮮總督府「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一六〇~一六一
- 七、文化公報部 文化財大觀 寶物篇 上 三三六二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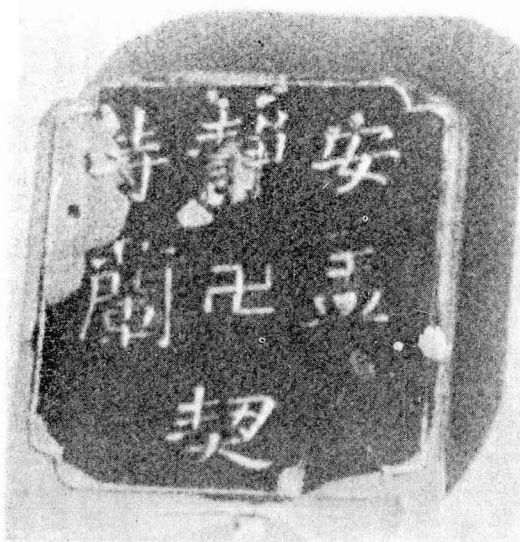
高麗時代의 孟蘭契牌

金 相 朝

今年여름 統營 閑山島 制勝堂 堂長 李淳弼先生께서 조그마한 木牌 하나를 주신 일이 있다.

實은 物件이 意外에도 佛敎制度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에 概略을紹介키로 한다.

寫眞에서 보는 바와같이 좁나무로 다듬어진 네모를 어엿부게 죽인 이 木牌의 表面中央에는 卍字를 새기고 右部分에 右橫書로 安靜寺, 卍字右左에는 孟蘭各一字를, 바로 아래에 契字를 楷書로 精誠들여 써서 陰刻하고



安靜寺 孟蘭契牌

裏面에는 從書로 梵語를, 卍(음|||唵)이라고 精巧하게 刻해져 있다.
 安靜寺란 慶南 統營郡 光道面 安井里 碧鉢山下에 있으며 八方九庵子가 俱存했던 元曉開瓶의 大刹로서 萬曆八年銘의 韓國鍾이 있는 널리 알려진

寺利이다.

孟蘭契란 李朝佛敎文獻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高麗時代에 盛行했던佛事로서 孟蘭盆, 孟蘭盆會, 孟蘭盆齋 孟蘭契라는 名稱으로 陰曆七月十五日 卽「백중날」各寺利마다 僧侶는 勿論 諸信徒 契員들이 寺利에 모여 自己祖上과 後裔없는 다른 者의 祖上들이 餓鬼道地獄에 떨어진 靈魂을 救濟함은 勿論이요, 自己父母의 長養慈愛의 恩惠를 갚기 爲해 餓食을 禁우어 山海珍味를 가득히 채려놓고 큰佛事를 이르켰다고 한다.

이 孟蘭契의 始源由來는 目蓮尊者가 自己의 어머니가 生前에 너무 많은 罪를 짓고 死後에 餓鬼道에 떨어져 있었음을 알고 모든 중생들을 달래어 大衆에게 供養을 올리게 하여 自己 어머니의 靈魂을 달래고 餓鬼道에서 救濟해 낸 데서 紀元한 것이다.

因하여 이 木牌는 高麗時代에 安靜寺의 孟蘭契 契員이 남긴것을 그後 孫이 잘 간직함것으로 보인다.

이 木牌는 길이 五·四cm 넓이 四·五cm 두께 〇·八cm의 香나무板을 네 모를 안으로 죽이고 돌레에 線刻을 했으며 字徑은 一·五미리이고 牌面 兩側全面에 깨끗이 生漆을 올렸으며 牌中央 上下로 구멍을 뚫었으니 끈을 끼워차고 다닌 것을 알겠으며 그러므로써 이 木牌가 佛敎界나 社會에서 身分을 保障받을 수 있는 重要한 役割을 한 것 같다.

法住寺大雄寶殿重修上樑文(三種)

(其 一)

孟 仁 在

朝鮮國忠清道報恩縣東嶺俗離山大法住寺大光明寶殿四度重修上樑文
伏以 金昊毓精做大聖於若隅 廓昏垢於彌天 玉獻膺靈凝至道於蓮界 抗寶筏於苦海洞開玄鑑 所以 八相燦修盤區宇而崇仰 共濟衆生 一輪森轉率扶域而儼臨 蔭慈雲於八極南無之元 茲豈但環瀛民生之利霍

法雨於萬方有東漸于海 抑亦爲歷代霄聖之勝益 惟茲俗離山者自是國南之一勝界而乃有大像 雄寶殿者蓋自始林初創乎其間也 層巖聳厝是

架構透深永爲金驅之安奉 剎立崇護於邃古 大屋將摧虹作香火之精禪 風靡雨滌之多年 福田味有弘樑縱皆慨然壞滅 弟子比丘翠椽八戒法敎之慶孰復若用心 一瑞惠心之雖昧 合四方之

細流洪波既溢 瓦繪并修并新猶存覆 一簷於平地九仞將成 法相是安是亨一世瞻仰之所有所 伏願上樑之後 名區不埋 萬規吉祥之於凝 法牢長峙 儼寶座於斯殿永資羣蒙之指南 飄風不能打戶殫畫構於茲山長作緇門之拱北 慧月終古入樞賴神明扶持 闡至敎於清淨

大明萬曆四十六年戊午三月初八月二十二日上樑 大明崇禎丙子後八十年歲在旃蒙協洽暮春之十二日著雍涒灘時大荒落上樑重修 奉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轉 施主秩

- 重剎大施主嘉善白貴善兩主 嘉善大夫鄭龍伊兩主 通政大夫慧一比丘 通政大夫金延忠兩主 折衝將軍徐壽方兩主 工生劉章道兩主 供養施主李業龍兩主 通政大夫孫壽兩主 通政大夫 朴桂奉兩主 嘉善大夫趙時正兩主 折衝將軍陸時明兩主 嘉善大夫尹永吉兩主 嘉善大夫能眼比丘 嘉善大夫朴戊戌兩主 嘉善大夫南以永兩主 嘉善大夫金必云兩主 嘉善大夫崔海天兩主 嘉善大夫崔大善兩主 嘉善大夫李大亮兩主 大功德主大均比丘 觀音殿鑰鑰帝釋幀梵 鐘閣三殿象兼化主 大功德主翠摻比丘 山人元常比丘 金順男兩主 大功德主三周比丘 大功德主念初比丘 宣宗判事泰清比丘 石柱單身 河貴相兩主 孫榮達兩主 安斗與兩主 鄭善云兩主 朴以貴兩主 黃桂立兩主 黃雲伊兩主 林貴山兩主 黃時云兩主 具桂祥兩主 崔忠立兩主 鄭德八兩主 尹胤男兩主 朴世榮兩主 朴桂仙兩主 金應光兩主 韓氏德禮單身 梁早吉兩主 梁潤澤兩主 李勝云兩主 金貴金兩主 金貴業兩主 金甲辰兩主 金貞代兩主 金水原兩主 朴命教兩主 南海明兩